

KBS 22 2019 11 22 2019 11 22

2019 11 22 2019 11 22 <728 KBS 2019 11 22>

2019 11 22 2019 11 22 2019 11 22

2019 11 22 2019 11 22 KBS 2019 11 22

2019 11 22 2019 11 22 2019 11 22

2019 11 22 2019 11 22 2019 11 22 2019 11 22

2019 11 22 2019 11 22 2019 11 22 <728> 2019 11 22



KBS 교향악단
KBS Symphony Orchestra



인천서구문화재단 창립기념공연

KBS교향악단 초청연주회

ROMANTIC SENTIMENTALISM

로맨틱センチメン털리즘

무소르스키 <인동산에서의 하룻밤>
M. Mussorgsky <A Night on the Bald Mountain>

프로코피예프 <신포니아 콘체르탄테>
S. Prokofiev <Sinfonia Concertante>

차이콥스키 <교향곡 제6번 b단조, '비창'>
P.I. Tchaikovsky <Symphony No. 6 in b minor, 'Pathétique'>

지휘 요엘 레비 Yoel Levi
첼로 파블로 페르난데스 Pablo Fernandez



2018. 3. 22. (목) 7:30PM 인천서구문화회관 대공연장
장일범의 프리렉처 7:00~7:20PM

티켓 : R석 3만원, S석 2만원, A석 1만원 예매 : 인터파크 티켓 1544-1555 엔터켓 1588-2341
문의 : 인천서구문화재단 032-579-1150 주최 : 인천서구문화재단 후원 : 인천서구청

지난달 22일 인천서구문화재단 대공연장에서 인천서구문화재단 창립기념음악회 <제728회 KBS교향악단 초청연주회>가 열렸다.

30주년 창립기념음악회 **KBS교향악단 초청연주회**가 열렸다. 이번 공연은 **ROMANTIC SENTIMENTALISM** (로맨틱センチメン털리즘)을 주제로, 무소르스키의 <인동산에서의 하룻밤>, 프로코피예프의 <신포니아 콘체르탄테>, 차이콥스키의 <교향곡 제6번 b단조, '비창'>를 연주한다. 지휘는 요엘 레비, 첼로는 파블로 페르난데스가 맡는다. 이번 공연은 <제728회 KBS교향악단 초청연주회>로, 인천서구문화재단 창립기념음악회 '30주년 창립기념음악회'의 일환으로 개최된다.



음악감독 율로 레비의 안정적 지휘 하에 공연 내내 유려한 흐름의 연주를 선사한 KBS교향악단.

대한민국 대표 <교향악단 방송>의 음악 향연은 항상 그렇듯, 이번에도 그 아름다운 선율과 풍부한 감성을 통해 <교향악단 방송>의 매력과 '교향악단'의 가치를 6월 24일 밤 '교향악단'을 통해 다시 한번 선보였다.

이날 방송은 교향악단 대표 작곡가 레비와 그의 제자들에 의해 완성된 교향악곡의 아름다움을 통해, 교향악단의 전통과 역사를 되새기게 했다. 또한, 레비와 그의 제자들이 남긴 유산과 정신을 이어받아, 교향악단의 전통과 역사를 계승하고 발전시켜 나갈 예정이다.

이날 방송은 KBS교향악단 대표 작곡가 레비와 그의 제자들의 아름다운 선율과 풍부한 감성을 통해, 교향악단의 전통과 역사를 되새기게 했다. 또한, 레비와 그의 제자들이 남긴 유산과 정신을 이어받아, 교향악단의 전통과 역사를 계승하고 발전시켜 나갈 예정이다. 이 방송은 '교향악단(Song of the birds)'의 아름다운 선율과 풍부한 감성을 통해, 교향악단의 전통과 역사를 되새기게 했다.

이날 방송은 교향악단 대표 작곡가 레비와 그의 제자들의 아름다운 선율과 풍부한 감성을 통해, 교향악단의 전통과 역사를 되새기게 했다. 또한, 레비와 그의 제자들이 남긴 유산과 정신을 이어받아, 교향악단의 전통과 역사를 계승하고 발전시켜 나갈 예정이다. 이 방송은 KBS교향악단 대표 작곡가 레비와 그의 제자들의 아름다운 선율과 풍부한 감성을 통해, 교향악단의 전통과 역사를 되새기게 했다.



공연의 대미를 장식한 차이콥스키의 교향곡 제6번 b단조 <비창>. 공연 후 관객들의 뜨거운 호응과 기립박수를 이끌어 냈다.

이번 공연은 차이콥스키의 교향곡 제6번 b단조 <비창>를 선보인다. 이번 KSB교향악단 공연은 10월 10일 오후 7시 30분과 11월 10일 오후 7시 30분 KSB교향악단 공연을 포함한다. <비창>은 차이콥스키의 대표작 중 하나로, 비극적인 운명을 그린 교향곡이다. 이번 공연은 4악장으로 구성된 이 교향곡을 통해 차이콥스키의 음악 세계를 깊이 있게 소개할 예정이다.

이번 공연은 차이콥스키의 교향곡 제6번 b단조 <비창>를 선보인다. 이번 KSB교향악단 공연은 10월 10일 오후 7시 30분과 11월 10일 오후 7시 30분 KSB교향악단 공연을 포함한다. <비창>은 차이콥스키의 대표작 중 하나로, 비극적인 운명을 그린 교향곡이다. 이번 공연은 4악장으로 구성된 이 교향곡을 통해 차이콥스키의 음악 세계를 깊이 있게 소개할 예정이다.



이번 연주회는 서구에서 처음으로 열리는 클래식 공연이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3.0 □□□□ □□□
 marinboy58@naver.com

□□□□ / □□□□□□□□